<u>John 14:15-26. A Life Shaped by Jesus. 요 14:15~26, 예수님께 빚어진 삶</u>

As you know, today is the last Sunday of the year 2025, and I have the privilege of sharing God's Word on this special day. I will also be preaching next Sunday, the first Sunday of the new year. So, as we look back on the past year and welcome the new one,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opportunity for us to reflect on our lives and consider what it means to live the Christian life.

For this reason, I have prepared a short sermon series based on John's Gospel, as I believe the passages we will be looking at offer profound insight into what it means to live the Christian life. Over the next two weeks, I will be preaching from chapters 14 and 15 of John's Gospel, reflecting on what it means to live our lives as Christians.

So, the big question before us is this: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And what does it mean to live the Christian life?

To begin exploring this question, I want us to turn to Matthew 7:21–22. There we see people who clearly thought of themselves as Christians. In fact, they had done some quite impressive works in the name of the Lord. They s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cast out demons, and do many mighty works in your name?"

Yet, despite their strong conviction and impressive deeds, we are confronted with Jesus' sobering response. He says,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He also warns,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Here, we are given a sobering reminder that the Christian life is not simply about how we feel or what our personal convictions may be, but also about discerning and following the will of the Lord.

아시다시피 오늘은 2025 년의 마지막 주일이며,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인 새해 첫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재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짧은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주 동안 요한복음 14 장과 15 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마태복음 7:21~22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구절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놀라운 일 또한 행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2 절).*

그러나 이들의 분명한 확신과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3 절).*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u>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u>"*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개인적 확신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엄중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In other words, while we are saved by grace alone, we are also called to have our lives shaped according to God's good and pleasing will.

Then the question is this: What does it mean for us to follow God's will? What does it actually look like for our lives to be shaped according to His will? I believe that Jesus' teaching in today's passage provides a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What we see in today's passage is Jesus' promise to send His Spirit. As we come to understand life in the Spirit, we begin to see what it truly means for our lives to be shaped by Jesus and His pleasing will.

So, the big question we are going to explore in this morning's message is: What does it mean for our lives to be shaped by Jesus? In answering this question, I will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ly, having our lives shaped by Jesus is about enjoying personal fellowship with Him, being united with Him. Secondly, it is about learning from Him and growing in our understanding of His teaching and His truth. Thirdly and finally, it is about growing in obedience to His teaching as an expression of our love for God.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Firstly, if we take a brief look at the context of today's passage, we see that it is part of what is called the "Farewell Discourse." Jesus was about to be arrested and crucified, and before His departure, He was preparing His disciples for life without His physical presence.

In this preparation, one of the key ideas is Jesus' promise to send His Spirit to the disciples. As He makes this promise, He also explains what it will mean for them to receive His Spirit after His ascension.

말인즉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빚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

그렇다면 여기서 묻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그 뜻에 따라 빚어짐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며,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짐의 구체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그 뜻에 따라 빚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 하며, 다음 세 가지 요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 빚어짐은,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림을 의미하며. 둘째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므로, 그분의 가르침과 진리를 이해하는 삶 가운데 성장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u>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u>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작별 담화(Farewell Discourse)'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곧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리적 동행 없이 살아갈 삶을 준비하도록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준비 과정에서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So here, Jesus first explains that receiving His Spirit means He will dwell among His people. This means He will be present with His people through the Spirit, and as a result, His people will be able to enjoy deep, personal fellowship with Him.

Have look at verse 16 for example. He says…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o be with you forever.”

When Jesus says “another Helper,” He means that Jesus will send His Spirit to replace His physical presence with them. So, although it may seem that Jesus is leaving His disciples in His death, this does not mean He is abandoning them. Rather, He will continue to be present with them through His Spirit. And this idea is further strengthened in verse 18, when Jesus says…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Then the important question is: what does it actually mean that Jesus will be with His people through His Spirit? We see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n verse 17, where Jesus says, “The Spirit will dwell with you, and He will be in you.”

Here, when Jesus uses the word “dwell” this means, He will make His Permanent home in the believer, and when he says “He will be in you”, He is essentially talking about our union with HIM.

So, in our union with Jesus, as He makes His presence known within us, this also means that we can have a personal encounter with Him—person to person— entering into deep, personal fellowship with Him through the Spirit. So, this is really the essential aspect of our Christian life, as we come to understand our life in the Spirit.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 먼저 설명하시기를, 예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인즉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므로 그와 풍성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6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들과 동행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제자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18 절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백성과 함께하신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7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하리라(dwell)”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믿는 자 안에 영원한 거처를 두시겠다는 의미이며. 또한 “너희 안에 계시리라(He will be in you)”라고 하실 때, 이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런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그가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주심으로, 그와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But the problem we often face in our Christian life is that sometimes we build our faith on empty formalism. I mean, without personally knowing Jesus—who is with us and invites us into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we tend to focus only on external things.

To give you a brief example: when I was studying at PTC Sydney, I attended a lecture on church sacraments, such as baptism. During the class, the lecturer gave us a question to think about. He asked, “If you are serving as a minister, and a random person walks into your church—someone who isn’t committed to any church at all—and asks you to baptize his newborn baby, would you do it?”

I couldn’t really understand the question. I mean, “If he isn’t committed to the life of any church, why would he want his child to be baptized at all?”

As I raised this question, he explained that it comes from what is called “cultural Christianity” (which is quite common in Western culture), where people identify as Christians mainly through family or cultural traditions.

Like in this example, there are times when we try to understand and shape our Christian life based on superficial, external things. We might think, “As long as I baptize my child, or as long as I maintain my church membership, I am living as a Christian.”

And of course, all of these things are important. But if we focus only on what is on the surface, we may end up missing the very essence—the heart—of the Christian life. From Jesus’ teaching, however, we discover the profound meaning at the centre of the Christian life. It is about enjoying life in the Spirit, and it is about enjoying personal fellowship with Him.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종종 마주하는 문제는, 지극히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려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인즉 우리와 함께하시고, 친밀한 교제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지극히 표면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짧은 예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세례와 같은 교회의 성례에 대해 배우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졸업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는 중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않은 외부인이 와서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에게 세례를 해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요청에 응하겠는가?”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았고, 교수님께 이같이 물었습니다. “ 애초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왜 자신의 아이는 세례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교수님은 “이는 서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적 기독교 (Cultural Christianity”에 비롯된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외형적 관행을 통해 이해하고 성립하려는 문화 가운데 비롯된 것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예처럼 우리는 이렇게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고 형성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세례받기만 하면, 아니면 그저 교회에 잘 출석하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외적 요소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그 삶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며, 이는 곧,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림에 있는 것입니다.

And it is in this personal fellowship we enjoy with Jesus that our lives are truly changed—truly shaped according to God's pleasing will. And that is because the people around us, the people we meet and spend time with, inevitably shape who we are. I mean, as we meet and spend time with others, we naturally absorb their values and character, and as a result, it influences us and changes us.

This is the reason why we want to send our children to a good school: because we know the friends they make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and help shape who they are. And a good school gives them a better chance of being surrounded by good friends.

Likewise, as we follow Jesus and enjoy fellowship with Him, our values and character will begin to change, reflecting His own. Consequently, our lives will be shaped according to God's pleasing will.

So, as I conclude this part, I want to leave you with a few questions to consider: As we seek to understand our life in the Spirit, have you personally met Jesus, and are you enjoying a genuine,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And as you do, is your life being transformed and shaped to reflect His character?

The Spirit points us to Jesus' teaching.

As we enjoy personal fellowship with Jesus, today's passage shows us that a life shaped by Him involves learning from Him, understanding His truth, and growing in it.

So, as Jesus promises to send His Spirit, what is especially striking in today's passage is how He explains the specific role that His Spirit will play. Jesus tells us that His Spirit is the One who will enable us and guide us to understand the truth.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빚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 교제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품의 영향을 받고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신경 쓰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좋은 학교일수록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성품은 점차 변화하여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하며, 설교 첫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인격 대 인격으로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 진리를 이해하며,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심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성령께서 행하실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When we look at verse 17, for example, Jesus describes the Spirit as “the Spirit of truth.” In the context of John’s Gospel, the word “truth” particularly refers to the truth revealed in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So, we see that, he is the Spirit who will testify about this person of Jesus.

When we also look at verse 20, Jesus says… “In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When Jesus says, “in that day,” He is clearly referring to the day they would receive the Spirit—on the day of Pentecost. As a result of receiving the Spirit, Jesus says they will be able to know the truth about the Father and the Son—that Jesus is in the Father.

So, we may ask, what is this truth about the Father and the Son? What does this unity between the Father and Jesus mean?

When we seek to answer this question in the context of John’s Gospel, we see that it first highlights Jesus’ divine nature. In the unity they share, just as the Father is God, Jesus the Son is also fully God.

And it is also in this unity they share that Jesus was sent by the Father to reveal truth and grace.

When we look at the first chapter of John’s Gospel, this idea is really well introduced. Verse 1, for example, say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When it says the Word was with God, this highlights Jesus’ unity with the Father. It also highlights Jesus’ divine nature by stating, “the Word was God.”

예를 들어 17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특별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진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령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실 분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또한 20 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날에”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날,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요한복음의 전체 배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는 우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말인즉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아들인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사실은, 이런 연합 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진리와 은혜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예로 요한복음 1 장을 보면, 이런 진리가 매우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1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연합을 강조함을 보게 되고.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을 보게 됩니다.

Then, in verse 14, John goes on to write that it was this Son of God who was sent by the Father with the purpose of revealing His grace and truth. So John writes, “The Word became flesh, and we have seen His glory, full of grace and truth.”

So, in light of this understanding, when Jesus says, “In that day, you will know that I am in my Father,” He is essentially saying: “I am the Son of God, who shares this great unity with the Father, and I was sent by the Father to reveal God’s grace and truth.”

Accordingly, we see that although Jesus is God—deserving nothing less than the praise of the entire universe—He humbled Himself by bearing the sin and shame of His people on the cross.
Through this Jesus, God has indeed revealed the way of salvation, and through Him we are able to see and experience His grace and truth.

And Jesus tells us that it is only when we receive His Spirit that we are able to understand this profound truth about Him and about God.

So here, we see the important role the Spirit plays in our Christian life: He points us to Jesus, helping us to listen to and understand His teaching. So, when we understand **our life in the Spirit**, it’s essentially about our lives being shaped by Jesus’ teaching - as we grow in our understanding of His grace and truth.

But the trouble we often face in our Christian life is that,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work of the Spirit, we often focus only on supernatural signs. For example, as some of you might know, before I moved to Melbourne, I lived in Sydney for about 18 years and had many Christian friends with a Pentecostal background.

이어 14 절에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보낸 받은 자이다”

결국 이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진리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예수님께서, 그 겸손 가운데 낮아 지사,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겸손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길이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u>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심오한 진리와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u>.

결국 여기서 보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핵심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진리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나감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주 겪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만 정의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시드니에 살았을 때, 아무래도 제일 큰 한인 교회가 오순절 교단의 교회였기에,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많았습니다.

I noticed that many of them understood the work of the Spirit primarily through supernatural signs. They would say that something was “the work of the Spirit” only when someone spoke in tongues or performed a healing miracle.

Now, I’m not saying that these aren’t the work of the Spirit—after all, God is a supernatural God who often works beyond our logic and understanding. But one problem I’ve noticed with this kind of understanding and practice is that the attention and praise often go to the person performing the miracle, rather than to Jesus.

For example, imagine I’m at a large Christian conference and perform a great miracle, healing a person with terminal cancer in the name of the Spirit. Suddenly, all the attention would be on me—I would become famous, and people would flock to experience the same kind of miracle. In the end, it’s not Jesus, but me, who receives all the attention and praise.

But the profound role of the Spirit we see from today’s passage is…He points us to Jesus. He points us to His teaching. And He opens our hearts and eyes to receive and understand Jesus’ teaching.

So, if you have received Jesus into your heart as your Lord and Savior, let us thank God for the precious gift of His Spirit, through whom we are able to embrace His teaching and accept Jesus as our only Lord and Savior.

And let us continue to strive to enjoy this great blessing: Let us be diligent in reading His Word, taking His teaching to heart, and allowing His teaching to shape our lives as we follow Him each day.

그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란,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물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논리와 이성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이적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런 가시적인 기적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이는 종종 예수님이 아닌,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모든 이목이 쏠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암 가운데 죽어가는 한 환자분을 치료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결과 모든 이목은 저에게 쏠리게 될 겁니다. 제가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 저는 명성을 얻을 것이고,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기적을 통해 모든 이목과 찬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신다면,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사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Life shaped by loving obedience.
Now, we come to the third and final point. From today's passage, we learn that having our life shaped by Jesus means growing in obedience as an expression of our love for Him.

So, when we read through today's passage, another important life principle that Jesus introduces is that…if we are to love Jesus, that love must be displayed through our obedience.

In verse 15, for example, Jesus says…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He again says in verse 21 that, *"Whoever has my commandments and keep them, he is who loves me"*
And in verse 23, Jesus again says…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And this is really an important principle of love - we see from John's Gospel. I mean, when we try to understand and define what love is, we of think of love, merely as an abstract emotion. But in John's Gospel, love is always presented as something that leads to specific actions.

And I believe John 3:16 is a great example of this. It says.."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Here we see, God's love towards His people, resulted in **a specific action of sending His Son**, into the world,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Likewise, when we love Jesus as a result of His loving grace, our love for Him does not merely remain an emotion; it results in obediently following His teaching. And we learn that - it is this growing obedience that further leads us to experience God's greater love. Verse 23 for example says… "If anyone loves me, he will keep my word, and my Father will love him, and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사랑의 순종으로 빚어지는 삶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 빚어진다는 건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 가운데 성장하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우리 순종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15 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 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 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사랑의 원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에 대해 정의하고 이해하려 할 때, 이를 단순히 하나의 추상적인 "감정"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 정의 되는 사랑이란, 항상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

이런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3:16 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으로 따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순종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예로 23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Here, it almost sounds as though Jesus is setting a condition for us to be loved by God. It can sound as if God will love us only when we first love Jesus and keep His word. If that were the case, then God's love would be conditional, and we would fall into the trap of legalism. But the actual meaning here, as many commentators explain, is that Jesus is presenting obedience a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God's greater love.

To give you an example, one of Jesus' commandments is to love our neighbours. As God unconditionally loved us first, Jesus likewise calls us to love others in the same way. Therefore, He even calls us to love our enemies.

Now imagine you're actually trying to obey that commandment by loving your enemy. You'll soon realise how difficult it is, and it can certainly feel almost impossible to love someone who seems so undeserving.

Yet that very struggle can itself become an opportunity for us to reflect God's amazing grace and love. In our struggle to obey His commandments, we soon realise that it was God who first displayed this kind of love by loving us while we were still His enemies. Thus, the struggle we face in our obedience can actually becom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and delight in God's loving grace toward undeserving sinners.

And we also eventually see that living in obedience is truly for our blessing and benefit. Often, we may see obedience as a burden, but when we learn that our obedience becomes a greater opportunity to enjoy His loving grace, we eventually realise that it is indeed for our blessing and benefit.

So, as I conclude this morning's message, I hope it helps you understand what it means to live our Christian life in the Spirit. And as we do so, I hope and pray that our Christian lives will be built and shaped not merely by external actions, but profoundly by enjoying the rich and full life we share with Jesus.

위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되고 우리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가 설명하듯이, 여기서 실제 의미는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할 기회로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의 계명 중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며, 그렇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종에 대한 씨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씨름 가운데, 그런 사랑이 어렵다고 느낄수록,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사랑을 먼저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 속에서 겪는 이런 씨름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되새기고,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한 명령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짐으로 여길 때가 많지 않은지요? 그러나 이런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기회가 될 때, 결국 이런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이해하고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단순히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풍성한 교제를 통해 세워지기를 기도 합니다.